

최연의 산 이야기 <5> 북한산 4

북한산 물줄기가 도성을 풍요롭게 적셔주는구나

북한산성은 백운대에서 남쪽으로 보현봉, 문수봉까지 뻗은 주능선과 서쪽으로 뻗어 있는 원효능선과 의상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을 벗어난 두 곳에도 산성의 흔적이 있다.

그 하나는 원효능선 상에 있는 영취봉(영초봉)과 의상능선 상에 있는 중취봉(중봉)을 잇는 즉, 북한산성의 허리 부분을 가로질러 축성된 성곽인 중성(重城)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산성의 외성으로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세검정 계곡의 홍지문(弘智門)까지 이르는 산줄기에 쌓은 미완의 성인 탕춘대성(蕩春臺城)이다.

북한산성은 북, 동, 남쪽은 산줄기로 둘러쳐져 방어에 용이한데 서쪽으로는 대서문(大西門)에서 중성문(中城門)까지 계곡길을 따라 지형이 평탄하고 지대가 낮아 적에게 쉽게 뚫릴 수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목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 계곡을 가로질러 구축한 2차 방어선으로서 중성(重城)을 쌓았다. 중성의 축성은 수구(水口)와 홍예(虹霓)의 축조와 함께 숙종38년(1712년)에 시작하여 숙종40년(17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탕춘대성은 북한산성의 외성(外城)으로 북한산성의 향로봉에서 도성(都城)의 인왕산을 잇는 성곽으로 조선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위치가 향로봉(향로봉)에서 불암(佛巖)·육전암·보도각·백불까지 이어지고 홍제천을 건너 인왕산의 도성까지 연결하려 했던 것 같으나 미완의 상태로 중단되어 인왕산 지역에는 현재 성곽이 남아 있지 않다.

탕춘대성이 위치한 세검정 계곡 일대는 도성과 북한산성의 중간지대로 전략적 요충지로서 서해(西海)를 통해 한강에 진입한 적들이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선 불광천과 홍제천의 합류지점에 상륙하여 홍제천 계곡을 따라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도성(都城)과 산성(山城)의 코밑인 세검정 계곡까지 들이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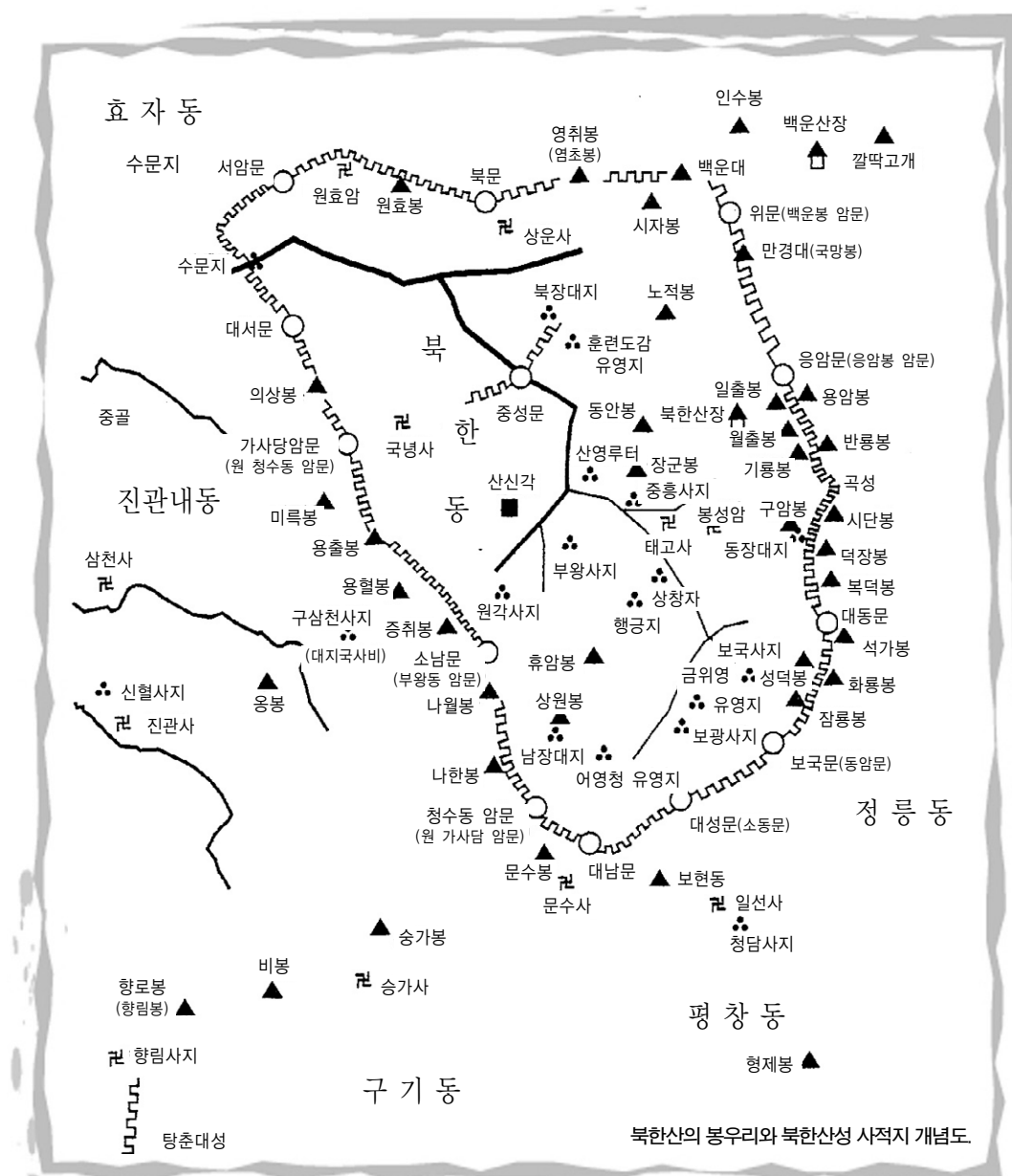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탕춘대성을 축성하기에 이르는데 숙종39년(17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신하들의 찬반양론으로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다. 숙종45년(1719년)에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가 대세를 이루어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미완의 성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탕춘대성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쌓다가 그만둔 것이다.

탕춘대(蕩春臺)라는 이름은 신라 태조무열왕 6년(659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화랑인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의 의로움을 기리기 위해 지어낸 장의사(藏義寺)를 연산군이 헐어버리고 경치 좋은 이곳에 연희장을 짓고 미인들과 집현정에서 놀았는데, 부근의 큰 바위를 탕춘대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연산군에 의해 폐사된 장의사는 고려 태조의 국사(國師)였던 원종사(元宗師)와 법인국사 탄문(坦文), 자정 국존 미수(彌叡) 등 고승을 배출하였고 고려의 국왕들도 자주 다녀갔다.

조선 초까지 1,100여명의 승려가 살았고 지붕을 청기와로 덮은 대가람이었다. 그 위치는 세검정중등학교 부근으로 운동장 남쪽에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남아 있다.

탕춘대성이 위치한 세검정 계곡 일대는 역사 지리적으로도 매우 주목 되는 곳이다.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 비봉



(蜂峰)에 순수비(巡狩碑)를 건립할 때 지나간 곳도 이곳이고, 신라 무열왕이 두 화랑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장의사도 이곳이고, 고려 선종(宣宗)이 삼각산의 장의사·신현사·인수사를 참배한 일이 있었고, 고려 의종(毅宗)이 승가사·문수사·장의사를 참배한 일이 기록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 이곳은 북한산에 오르는 주요한 길목으로 이미 잘 알려진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이병도 박사는 이 일대를 백제시대 때 하북위례성(河北禮禮城)이 있었던 곳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백제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적도 없고 산세가 험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어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산을 타고 내린 물줄기는 모두 한강(漢江)으로 유입되는데, 북한산의 동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은 우이천

(牛耳川)이 되어 도봉산에서 흘러내린 도봉천(道峰川)과 북동쪽에서 만나 수락산의 서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과 만나 되어 도성의 외수(外水)인 중랑천(中浪川)을 이룬다. 상계, 중계, 하계의 마을 평야를 풍요롭게 적셔주고 한양 대 앞 살갓이 다리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보현봉과 문수봉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홍제천(弘濟川)은 녹번천을 받아 안은 불광천(佛光川)과 난지도종에서 합류하여 한강의 품에 안긴다.

형제봉 능선 동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물줄기 한줄기는 성북천(城北川)이 되어 창신동에서 또 다른 한줄기는 정릉천(貞陵川)이 되어 용두동에서 인왕산과 북악 사이에서 발원하여 도성 안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청계천(淸溪川)과 만나 살갓이 다리에서 중랑천과 만나 한강을 이룬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새의 집

‘파다다다.’ 새의 희금한 날갯짓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온다. 멍청, 소나무 아래로 들어가면 발을 멈춘다. 푸르름이 가득한 소나무 잎 아래, 잔가지들이 뽀뽀하게 얽힌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하루 일을 마치고 밤을 보낼 자리를 잡고 휴식에 들어간(아름속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한 것인 지도 모른다.) 새가 날개를 접을 때의 마음을 송두리째 알아가는 울림이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이의 가지였지만 신체의 위험을 느낀 새의 본능이 날개를 퍼덕여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만들었을 것이다. 의식하고 판단하여 행동에 옮긴다면 늦다. 목숨은 본능적 감각이 의식 이전에 개입하여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켜낸다. 목숨은 본능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목숨 앞에서 몸을 사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는 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새가 겁도 많다’고 얘기하려니 나 또한 가슴 한쪽이 쉼 내려앉으며 발을 멈추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본능이 의식보다 먼저 나를 제어했다. 새가 겁쟁이라면 나도 겁쟁이다.

내 발자국 소리에 놀란 새가 위로 오르는 것을 보니 새는 역시 하늘과 가까운 모양이다. 나는 날개가 없어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으니 일단 멈추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산그늘이 길게 드리운 저녁. 밤은 발 앞까지 다가왔다. 오늘의 집으로 새가 선택한 소

나무는 잔가지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작은 새들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골짜기 찾아드는 곳이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희금한 도망가는 새의 소리를 접할 때마다 나는 멍달아 놀라곤 한다.

평보다 하늘이 가까운 새들은 고정된 집이 없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집을 가질려는 마음조차 없애 버렸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번식기에 둥지를 만들긴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미련 없이 집을 떠난다. 고정된 집을 버렸다하여 세상 전체가 그들의 집인 것은 아니다. 잠자리가 될 만한 장소는 새들에게도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서 매일 매일 안전하게 밤을 보낼만한 공간, 하룻밤 동안의 집을 찾아 밤을 보낸다.

새에겐 새의 집이 있고 사람에겐 사람의 집이 있다.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집들이 가면 갈수록 크고 복잡하고 단단해져, 하늘을 찌르고 땅을 찌르고 사람 자신의 마음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떨쳐내긴 어렵다.

사람은 대개 평생 동안 집 한 채를 짓거나 돈을 주고 산다. 이곳 사람들도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지막이 집 한 채 새로 짓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까지 보낸 뒤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짓고 나면 환갑을 훌쩍 넘겨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자신이 지은 집에서 사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오늘처럼 눈이 소나무를 뒤덮은 날엔 지붕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하얀 집이 새들의 집이다.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집을 짓는 품도 들이지 않고, 하얀 지붕을 얹은 나무집을 갖게 된다.

산 아래 마을의 등불이 점점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집의 파사로운 기운이 번져온다. 집을 밝히는 빛이 파사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런 집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내 속마음이 내게 본 모습을 들켰다.

밀려드는 어둠과 추위에 맞설 준비를 마치고 나뭇잎과 가지로 만들어진 집에 몸을 맡긴 채, 밤을 맞이하는 새와 같은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파사한 사람의 집은 영영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내보이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꺾일 줄 모르고 다가오는 길 위에서 서서, 나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며, 빠르게 내려앉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 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를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는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윗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윗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어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불삼** 02)2004-8216

동원 031-01-269062 (주)한불삼고신문화